

...비록 그대의 머리카락이 반백으로 변하더라도
그대 자신을 슬픔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대는 아직도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 Simon de Debeauvoir, The Coming of Age

주로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치료하는 비뇨기과
의사로써, 남성의 원만한 성생활이 여성의
원만한 성생활과 일치하리라는 고정 관념이 큰 오
산이었으며, 또 이 지구상에는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의 여성이 존재하고, 이들 여성들이 알게 모르
게 자신만의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는 평범한 사
실을 인지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 통의 전화였다. 30대 후반
정도의 여자분의 전화였는데, 자신이 겪는 성생활
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매스 미디어
에서 성생활을 주제로 하여 다루는 내용이나 의학
적인 진단과 치료법이 주로 남성 위주로만 되어
있고 여성에 대한 배려는 적다는 조심스러운 항의
전화였다.

이를 계기로 여성의 성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알
기 위해 여성의 성기능 장애라는 제목으로 여러
해에 걸쳐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의학논문을 검색
해 보았다. 그런데, 비교적 여성의 사회적 활동이
활발하고 성에 대해 개방되어 있는 서구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성의 성생활에 관해 다룬 논
문은 남성에 관한 것에 비해 그 수가 훨씬 적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성의 성문제는 남성에 비해
훨씬 더 은밀하여 외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적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발기불능과 같이 배우자까
지 확실히 알아차릴 수 있는 치명적이고 뚜렷한
증상이 없으며 대개는 부부생활은 가능하나 성교
통이라든가 극치감의 결여 등 본인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증상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발표된 논문들도 단지 설문조사를 통해 환
자 스스로가 느끼는 주관적인 변화에 대해 관찰한
연구 논문이 많았다.

이것은 본인이 비뇨기과 레지던트로 수련을 받
던 80년대 초와 비슷한 현상으로, 그 시절에는 남
성의 성기능을 진단하는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
문에 젊은이의 성기능 장애가 신체적 이상으로 인
한 것이라도 정신적 이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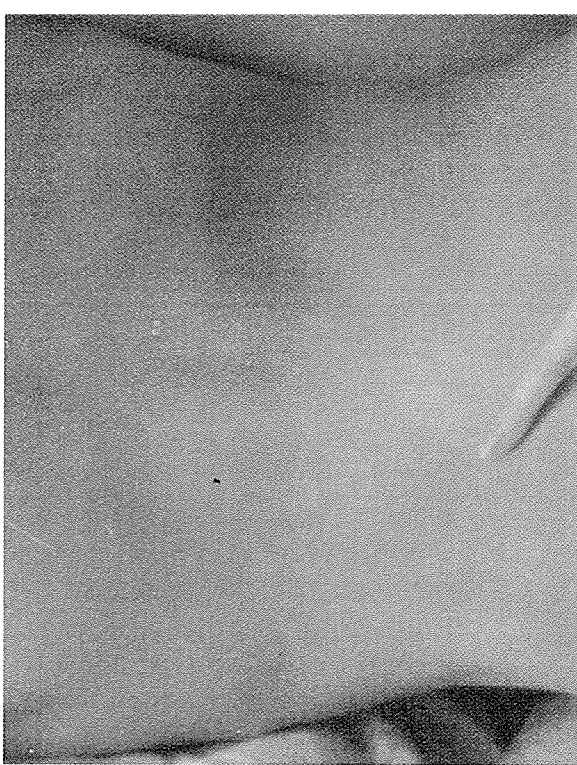
노인들의 건강한 성생활(2)

이 충 현 · 경희의대 비뇨기과학교실

다.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우리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전설과 같은 믿음, 즉 '나이가 들면 성생활로
부터 은퇴해야 하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추하다'
는 생각 때문에 환자 자신 뿐만 아니라 이들을 치
료하고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의
사조차도 이를 등한시하고 외면했었다.

현재 여성 성기능 장애의 경우가 과거 십수년
전의 남성 성기능 장애의 의료 수준과 비슷한 상태
라 생각된다. 실제로 여자 환자가 성기능 장애를
호소하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는 것이 힘든 이유 중
의 하나는, 증상을 의사에게 호소해도 대개는 정신
적 요인으로 간주되어 버려서 별로 도움이 안될 것
이라는 생각이 앞선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50년이나 전에 성에 관련
된 서적으로는 고전이라 할 수 있는 Kinsey 보고서
가 발표되었는데, 그 시절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기는 성생활의 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서 더 심각하다고 되어 있다. 또 Masters와 Johnson의 보고에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여성에게 생기는 생리적인 변화는, 성적인 흥분기에도 질을 비롯한 외성기의 혈류가 감소하고 유두나 유방의 변화도 적고 성기의 순환도가 감소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극치감 자체도 젊었을 때와 비교해 약하고 수도 감소하며 회복기의 혈류의 감소도 훨씬 빠르게 생긴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성교통이나 분비물 감소, 극치감의 결여 등을 주로 호소하는 여성 성기능 장애의 발생기전을 살펴 보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젊었을 때는 왕성하게 분비되던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여 질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또 질을 싸고 있는 점막이 얇아지며 분비물이 감소하게 되어 상처받기가 쉽고 질염 같은 감염이 잘 발생하는 것이 그 원인으로써, 65세 이상 여성의 3분의 1정도에서 성교통을 겪는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변화가 소변을 볼 때도 나타나는 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소변을 봐도 시원치 않은 노인성 요도염이나 여성 요도 증후군의 증상이 생긴다. 또 기침을 하거나 웃거나 줄넘기 같은 운동을 할 때 복부의 압력이 증가하면 젊은 사람의 요도의 점막은 두텁고 탄력이 있어 소변의 누출이 방지되지만 나이가 들면 질의 점막과 마찬가지로 요도의 점막도 얇아져서 이를 막지 못하여 소변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긴장성 요실금을 유발하기

도 한다. 실제적으로 이런 요실금이 있는 환자의 반수 정도에서 성생활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성생활에 대한 관심과 욕구는, 여성의 경우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남성 호르몬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기질적 변화 외에도 여성 특유의 정신적인 요인이 가해지는데, 대개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수명이 길어, 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는 65~69세의 경우 84명, 70~74세의 경우 76명, 75~79세의 경우 65명으로 남성의 수가 확실히 적으며 또 대다수의 부부가 여성보다 남성의 나이가 많기 때문에 많은 수의 여성이 상당기간 홀로 지내게 되고 여성의 경우 외모의 변화에 예민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에 의해 성생활 자체가 억압된다고 한다.

사회의 개방화와 더불어 여성의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과거에는 참고 숨기고 지냈던 여성의 성적인 문제가 점점 표면적으로 노출되고 형상화되고 있다. 실제로 젊은 여성은 물론이고 나이가 든 여성도 어느 정도의 성생활을 원하고 또 영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성기능 장애를 겪는 여성의 고통도 남성의 그것과 유사하다면 모든 남성들이 자신의 아내를 위해 좀더 많은 배려를 함으로써 많은 수의 여성의 성기능 장애가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기능 장애가 있다면, 여성들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 의논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쉽게 병원을 찾아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목욕탕집 들췌며 느리리 같이, 외롭게 방황하는 불행한 여성이 없어져야 하지 않을까?

의학이 단순히 인간의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동안 삶의 질을 더욱 높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도록 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면,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성생활이란 모든 인간의 삶의 질과 행복에 관련하여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㉔**